

지금 시작하는 펀드가입 테크닉

이진욱 | 재테크 전문가

최고의 재테크법으로 떠오른 펀드 종류도 많고 도대체 어떤 펀드가 내게 적합할지, 또 지금 시작해도 좋을지 궁금하다. 좋은 펀드는 어떻게 골라 최선의 이윤을 낼 수 있는지를 전문가를 통해 알아보았다

요즘 고객들로부터 늘 받는 단골 질문이 있다.

“펀드 수익률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요?” 혹은 “지금 펀드에 가입해도 괜찮은가요?” 아니면 “어떤 펀드가 좋은가요?” 등이 주류를 이룬다.

저금리, 고령화 사회 그리고 저평가된 한국 주식시장 등을 볼 때 장기적으로는 주식 투자가 올바른 재테크라는 말은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 ‘모범답안’을 가르쳐 달라는 것이다. 하지만 아쉽게도 이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. 당장 정답이라고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정답을 찾아가는 길, 즉 펀드 투자를 통해 돈을 버는 방법은 있다. 좋은 펀드를 골라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다.

그렇다면 좋은 펀드란 어떤 펀드일까 펀드 역사가 우리 나라보다 훨씬 긴 미국의 예를 들어 보자. 미국의 경제잡지 <포춘(Fortune)>은 지난 15년간 뛰어난 성과를 거둔 스타 펀드를 소개했다. 이들 스타 펀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?

먼저 우리들의 관심사인 ‘수익률’ 부터 살펴보자. 이들 펀드의 수익률은 연평균 10~20% 가량이다. 낮은 것은 5~6%대(주식과 채권에 나눠 투자하는 혼합형)도 있다. 이 정도 수익률로도 좋은 펀드라니 재작년에 주식형 펀드 투자를 통해 50~60%의 수익률을 얻은 우리에게겐 의문이 드는 수익률이다. 하지만 ‘15년간의 성과’와 ‘연평균 수익률’이라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.

만일 어떤 펀드가 15년간 연평균 17%의 수익률을 올렸다면 내 돈은 몇 배로 불어날까? 놀랍게도 10배가 조금 넘는다. 1억 원을 투자했다면 10억 원 이상이 되어 있을 것이다. 바로 불기효과와 장기투자 때문이다. 펀드는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을 펀드에 재투자하는 복리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. 단기로 볼 때는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수익률도 시간의 힘을 활용하는 복리와 만나는 순간 어느 순간 갑자기 커지기 시작한다. 첫 번째,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펀드 선택의 아이디어는 한두 해 깜짝 수익률보다는 꾸준한 수익률을 올리는 펀드를 골라야 한다는 점이다.

이런 펀드에 장기 투자하면 복리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. 펀드 역사가 짧은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펀드를 설정한지 3~5년 이상 된 펀드 중에서 꾸준한 수익률을 기록했는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. 그리고 ‘수익률 1등’이란 말에 현

혹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.

역사상 가장 위대한 펀드매니저로 불리는 피터 린치는 13년 동안 마젤란 펀드를 운용하면서 단 한 해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적이 없다. 그가 이 기간 동안 올린 수익률을 연평균 29%로 전체 수익률로 환산하면 약 2,700%나 된다.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그가 13년 동안 단 한 번도 연간 기준으로 수익률 면에서 1등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. 꾸준히 상위 25% 이내의 성과를 보이는 펀드가 가장 우수한 펀드이다.

두 번째,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펀드 선택의 아이디어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운용사다. 모든 운용회사가 운용 철학과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지만 이를 얼마나 엄격하고 일관되게 지키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. 우리 나라 자산 운용사 사장의 평

균 재임기간이 채 2년 안 되는 상황에서 운용의 일관성을 갖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. 외국의 사례에서 보더라도 높은 수익률과 좋은 평판을 가진 운용사들 중에는 전문 자산 운용사가 많다. 고객의 자산을 엄격하고 일관되게 운용할 수 있는 전문 자산 운용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장기투자를 위한 필요조건이라 생각된다.

펀드 선택은 배우자를 고르듯이 신중하게 평생을 함께 할만한 펀드를 선택하고, 일단 선택한 펀드는 믿고 지켜보는 것이 정도이다.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었을 때 나를 든든히 지켜줄 펀드를 골라 투자하는 것이 앞으로는 배우자 선택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. 이것이 우리가 펀드 투자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다.

한자어(漢字語) 바로 읽기

- 슬피 -

- ◆ 遊說(유세)
각처로 돌아다니며 자기의 의견을 말하거나 소속기관, 정당의 주의 주장을 전하는 일.
× 유설
- ◆ 吟味(음미)
① 글이나 노래를 맛보는 것
② 사물의 의미를 새겨서 깊이 연구함
× 금미
- ◆ 安否(안부)
편안하고 아니한 소식
× 안불
- ◆ 擴大(확대)
늘이어서 크게 함
× 광대
- ◆ 罹災民(이재민)
재앙을 만난 백성
× 나재민
- ◆ 悔恨(회환)
뒤우치고 한탄함
× 매한
- ◆ 獲得(획득)
① 얻는 것
② 자기 수중에 넣는 것
× 획득
- ◆ 戰況(전황)
전투하는 상태
× 전함